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톈진외국어대학교	기숙사비	7400/한 학기
파견지역	천진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18.09.03~19.01.02	기타비용	생활비, 통신비 등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01. 03.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학기가 시작하면 레벨테스트를 봅니다. 레벨테스트는 시험지를 풀고, 교수님과 1:1 대화도 합니다. 천진외국어대학교는 초1,2,3,준중, 중1,2,3,4,준고,고1,2로 반이 수준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기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은 자기가 듣고 싶은 반의 수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수업은 강독, 회화, 듣기, 독해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동안 중1반에서 공부했고, 일주일에 강독 수업이 3개, 회화 수업이 2개, 듣기수업이 1개, 독해수업이 2개가 있었고 수업 시간은 첫 교시가 8시, 한교시에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중간에 5분에서 10분정도 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강독 수업의 과제는 대부분 본문 미리 예습해오기(모르는 단어 찾아오기, 읽기연습)와 연습문제(보통 2~3문제) 풀어오기였습니다. 회화는 공부한 단어 복습해오기, 배운 표현들로 작문해오기였습니다. 공부한 단어를 복습해오면 받아 쓰거나 단어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은 칠판에 자신이 외운 단어를 적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단어를 보지 못하게 나머지 학생들을 보고 앉아서 나머지 학생들이 그 단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면 맞추는 형식으로 복습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듣기는 빈칸 채우기, 문제풀기 형식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약간 긴 문제나 자주 나오는 표현, 어휘들을 짚어주셨고 과제는 하나의 듣기 스크립트에 여러 문제로 구성되어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형식은 HSK4급과 같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독해는 풀어야 하는 본문 분량을 정해주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 각자 풀면 학생들이 돌아가며 한 문단씩 본문을 읽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이 나오지만 교수님께서 쉬운 단어로 바꿔서 설명해주시거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과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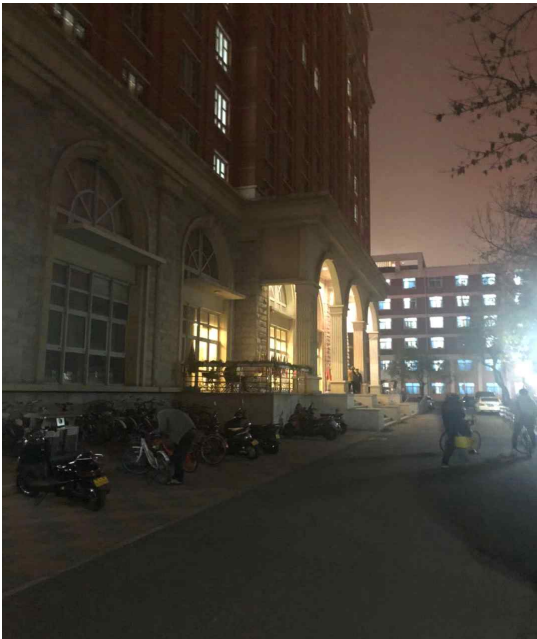
천진외국어대학교는 공항에서는 택시로 40분, 변화기에서는 걸어서 20~30분 정도 걸립니다. 기차역과 대형마트등도 가깝고, 주변에 공원이나 골목길도 예뻐서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학교 근처에 버스 정류장도 많고 지하철역은 10분에서 15분정도 걸어야 있지만 어디든 가깝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고, 학교 문을 나서면 택시도 잘 다녀서 편리했습니다. 여름의 날씨는 햇빛이 강해서 몸이 많이 탔고, 가을,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건조하고 공기가 너무 나빠져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약간 꺼려졌습니다. 정말 심했을 때 대기오염지수는 약 300에서 700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고층 건물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난 적 없는 다래끼가 여러 번 났고, 잔기침이나 콧물이 계속 나는 등 몸도 꾸준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중순부터 말까지는 정말 맑았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통신사가 있고, 주변에 과일가게, 음식점, 미용실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식당 지하에도 편의점과 마트, 카페, 미용실, 네일아트샵, 문구점 등등 약간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400/보증금150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기숙사 통금 11시 애완동물, 주류 금지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금지		
주요사항	이주일에 한 번씩 기숙사 침구 갈아주심 불시에 방 검사 실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유학생 기숙사는 2인 1실로 침대, 책상, 옷장,
 침구, 방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 카드를 이용하고, 방음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기숙사 통금 시간은 11시이며
 이후에는 이틀, 사유, 들어온 시간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숙사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서 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모습입니다.
 원래라면 밑의 사진처럼 높은 건물들이
 다 보여야 하지만 심한 날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방 마다 크기가 달랐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방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이 잘 되었고
제가 쓴 방은 햇빛이 잘 들어와서 난방을 한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미를 제외하고
비퀴벌레 같은 벌레를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주방은 공용이며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
전자레인지, 온수기 등이 있어서
밥을 만들어 먹거나 데워먹거나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프라이팬, 칼, 가위, 도마, 세제 등은

개인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유학생 기숙사 바로 옆에는 학생식당이 있습니다.

충 3층까지 있고 다양하고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회전율도 빨라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세탁실은 각 층마다 있고 보통 3대정도 있습니다.

웨이신이나 이카통을 충전해서 이용합니다.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자신이 준비하여야 하고
세탁실에 건조대도 있어서 걸어놓을 수도 있어서

세탁물이 많아서 방에 다 넣지 못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안의 쓰레기봉투를 방 문 앞에 내놓으면
아주머니들께서 치워주십니다.



사 진 첨 부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사 진 첨 부

도서관은 A동 B동이 있습니다.
 자료 열람실 A동 창가 쪽 창틀이 넓어서
 그 곳에도 의자가 놓여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해도 괜찮고, 더 큰 테이블도
 구비되어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사람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조그맣게
 읽으면서 공부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A동과 B동이 연결되어있는데 B동으로 넘어가면
 과 이름이 적힌 방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큰 테이블이 여러 개 있고,

더들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들어가서 공부해도 괜찮았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강의 동에도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자습을 합니다.
 주말이나 수업이 끝난 저녁 등
 언제든지 아침 일찍부터 개방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은 책상이 하나하나 다 각자 있거나
 3개가 붙어있는 강의실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9층에는 칠판이 전자칠판이어서
 수업중간에 자료를 찾거나 피피티로 발표할 때도
 편리했고 신기했습니다.
 (옆 사진이 B동 프랑스어학과 자습실입니다.)

사 진 첨 부

교환학생 파견 수기

사실 저는 교환학생에 지원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다녀오면 4학년이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건 아닐지 내가 가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또 이런 기회가 올까, 또 언제 타국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해서 한 학기를 천진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수업이 12시경 끝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내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게 어색하기도 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했지만 충분히 쉬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매일 산책을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급하지 않은 일에도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었는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약간은 더 여유롭고 침착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오기에도 무리가 없는 시간이라 내몽고,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청도 등 중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중국은 너무 큰 나라라 지역마다 심지어는 아예 다른 나라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중국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직접 살아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타국에서 살다보니까 가족들, 친구들 등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본다는 게 가끔 서럽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있어서 혼자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견뎌야 하는 게 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그 친구들에게도 많이 배우면서 확실히 한국에서만 공부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넓게 중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 때는 주저 없이 바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